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1, pp.147-182
<https://doi.org/10.29212/mh.2024..131.14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이호준 | 대한민국 해군

- 목 차
1. 서론
 2.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시설 인수
 3. 장병의 양성과 교육
 4. 함정 확보와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활동
 5. 결론

초 록 이 연구는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의 창설과 발전을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해운) 관련 유산과 미국 군사원조의 결합이라는 틀로 분석했다.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는 일본이 남기고 간 해군(해운) 관련 유산들이 다수 존재했다. 창설 초기 해군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조선해안경비대는 이를 활용해 조직을 빠르게 확장함과 동시에 부족한 자원은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조선해안경비대는 비교적 단기간에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연안에서 독자적으로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중 미국의 군사원조는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이었으나, 반대로 그 한계도 명확했다. 1947년 중반 미국은 대한민국 수립과 주한미육군 철수에 대비해 조선경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면서도 전환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선해안경비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에 조선해안경비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조선해안경비대 육성방침은 6·25전쟁 발발 이후까지도 계속됨으로써 대한민국 수립 직후부터 해군 증강을 추진한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과 충돌했다.

주제어 : 조선해안경비대, 대한민국 해군, 손원일, 미군정, 군사원조

1. 서론

이 연구는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의 창설과 발전을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해운) 관련 유산과 미국 군사원조의 결합이라는 틀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패전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과 행정의 공백을 수습하고 사회질서와 치안을 유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국과 건군에 이바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다는 목적으로 군사 경력자들에 의한 창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 그중 1945년 11월 11일 손원일(孫元一, 1909~1980) 등의 해군 창군 요원과 미군정이 중심이 되어 창설한 해방병단(海防兵團)은 해군 창설을 목적으로 조직된 유일한 단체였다.²⁾

창설 초기 해군 건설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했던 해방병단은 일본이 남기고 간 해군 관련 시설과 물자들을 접수해 전국에 해군기지를 설치했으며, 1946년 6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Korean Coast Guard)로 정식 명칭³⁾을 부여받고 미국의 지

1) 당시 창군을 목적으로 한 군사단체는 미군정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만 하더라도 30여 개에 달했다. 한용원, 『創軍』(서울: 博英社, 1984), p. 26.

2) 1946년 1월 9일 미군정은 군정법령 제42호를 통해 해방병단의 소속을 운수국에서 국방사령부로 변경하고, 이를 정식 군사단체로 승인했다. 이어서 1월 15일에는 진해 군항 내에 해안경비대 사령부를 설치하고 손원일을 해안경비대 사령관에 임명했다. “Ordinance No. 42” (1946. 1.14),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60, XXIV Corps Personalities (2 of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사료건 AUS179_01_06C0009_106).

3) 이는 군정법령 제86호에 따른 것이었다. “Ordinance No. 86-Korean Constabulary

원을 받아 함정 등을 도입하며 해군의 기틀을 다졌다.⁴⁾ 이후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출범한 이승만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아 1948년 9월 5일 해군을 창설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과정에 대한 규명은 이후 등장한 한국 해군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⁵⁾

그러나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빈약한 실정이다. 소이어(Robert K. Sawyer)와 허미즈(Walter G. Hermes)의 연구는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이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⁶⁾ 한용원의 연구는 조선해안경비대 창설 당

and Korea Coast Guard” (1946. 6.15), Records of the Treasury Department in Foreign Affairs,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Affairs, Geographic Files: The Far East, 1944-1959, Korea: Official Gazette Ordinances, Vol. I [includes Korean Translation, 1945-194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사료건 AUS267_01_01C0062_016).

- 4) 본 논문은 해방병단과 조선해안경비대의 역사적 연속성에 주목하되, 미군정이 점령 초기부터 정규군인 해군(Navy)과 구별되는 준군사(paramilitary) 조직인 해안경비대(Coast Guard)를 육성하려 했다는 점에 착안해 ‘조선해안경비대’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했다. “Report of Proceedings of Board of Officers” (1945.11.18), RG 332, Records of U.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 1939-1948,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06/30/1949 [Entry A1 1256], USAFIK: Tactical, RG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the Okinawa Campaign, USAMGIK, Box No. 6, XXIV Corps, Station List, etc. (2 of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사료건 AUS179_01_08C0007_026).
- 5)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에 관해서는 김명섭·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2022), pp. 283-324; 이호준·김명섭,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전후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 『국제정치논총』, 제63집 4호(2023), pp. 127-162; 이호준, “이승만정부의 해양 위협인식과 해군정책,”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2024).
- 6) Robert K. Sawyer and Walter G. Hermes(eds.),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t. of the Army, 1962)*.

시의 인적 구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 조직의 성격을 규명했다.⁷⁾ 신영진과 김주식의 연구들은 조선해안경비대 창설 및 이후의 전력 증강 과정 등을 개괄적으로 서술했다.⁸⁾ 국방부와 해군에서 발간한 공간사(公刊史)들은 조선해안경비대 창설과 발전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 있지만, 표면적인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 그 역사적·정치적 함의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⁹⁾ 게다가 소이어와 허미즈의 연구를 제외하면, 이 선행연구들은 조선해안경비대 창설과 발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미국 측의 사료들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미국 측 사료들까지 포함해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사데이터베이스 대한민국 편의 『미국의 대외관계(FRUS,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시리즈,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소장 RG 165(전쟁부 일반·특별참모 문서), RG 218(합동참모본부 문서), RG 332(주한 미24군단 정보참모부 문서), RG 338(육군 작전·전술·지원 조직 문서) 등을 주로 활용했다.

7) 한용원(1984).

8)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 제16호(1988), pp. 217-237;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2008), pp. 209-250; 김주식, “6·25전쟁기 한국 해군의 함정 획득과 운용,” 『해양담론』, 제1호(2023), pp. 127-166.

9) 國防部, 『國防史 1, 1945. 8~1950. 6』(서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 海軍史 行政篇, 第1篇』(서울: 海軍本部, 檀紀 4287[195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a).

2.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시설 인수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는 과거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 건설한 해군 관련 시설이 다수 존재했다.¹⁰⁾ 따라서 해방병단 창설 초기 손원일은 이들이 남기고 간 시설을 활용해 해방병단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중 진해 해군기지는 과거 일제가 러시아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하고, 일본-조선-만주를 잇는 교통로를 방어하기 위한 핵심 거점으로 삼았던 곳으로 창설 초기 해방병단이 활용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

진해 해군기지의 역사는 일본이 러일전쟁에 승리한 직후인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¹¹⁾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한제국을 압박해 진해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동의를 얻고 1910년 4월부터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 특히 일본 해군은 1909년 작성한 극비 문서에서 진해의 위치를 “일본해(日本海)의 인후(咽喉)에 해당”하며, “대륙에 대해서는 일본 해·육군의 확고 불변한 거점으로써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한 바 있었다.¹²⁾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일본정부는 진해 해군기지에 요코스

10) 일본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건설한 해군기지와 해군항공기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파주: 나남, 2014), pp. 17-106, 206-240, 344-348.

11) 진해 해군기지의 역사에 관해서는 고정석, 『鎭海軍港史』(진해: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12) “<극비> 제1호 군항의 성질, 가치 및 필요한 시설 방침(1909),” 김연옥(편역),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 한반도 주둔 일본군 사료 총서 3』(서울: 역사공간, 2011), pp. 22-23.

카(橫須賀), 구례(吳), 사세보(佐世保) 및 마이즈루(舞鶴)와 동급인 군항(軍港)의 지위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할 진수부(鎭守府)를 설치하고자 했다.¹³⁾

1941년 일본 해군은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진해에 경비부(警備府)를 설치해 한반도와 랴오둥(遼東) 반도의 모든 해군기지를 지휘하고, 이들 해역의 방어를 담당토록 했다.¹⁴⁾ 이 시기 진해 경비부는 사세보 진수부에 소속되어 소관 구역의 방비, 진수부 소속 함정들에 대한 보급, 시정의 운영 등을 감독했으며, 이를 위해 현대적인 항만 시설을 비롯해 300톤급 함정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대(造船臺), 9,000여 톤의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중유조(重油槽), 2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영 및 현대적인 의료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⁵⁾

해방병단 창설 당시 손원일이 서울과 가까운 인천이 아닌 진해를 택한 이유도 향후 미군정으로부터 진해 경비부의 시설을 넘겨받아 해방병단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1945년 11월 14일 해방병단은 진해 해군기지 내 일본 해군 항무부(港務部) 건물을 미군정으로부터 인계받고, 해방병단

13) 군항과 진수부는 일본 해군의 함대급 부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갖추고, 이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조직이 편성된 일본 해군의 핵심기지였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러일전쟁 이후 러시아 태평양함대의 위협 감소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Washington Naval Treaty)에 따른 전력 감축 등을 이유로 진해 해군기지를 군항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인 요항(要港)으로 지정하고, 요항부(要港府)를 설치했다. 고경석(2016), pp. 83-92.

14)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 해군은 해군기지를 진수부와 경비부 체제로 운영했다. 당시 진수부는 함대의 모항(母港)이었으며, 경비부는 진수부에 소속되었다. 특히 경비부에는 함대가 배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함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조직인 해군공창(海軍工廠)이 없었으며, 각 진수부에서 엄출한 함정과 인원으로 운영되었다. 김윤미,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해군의 진해경비부 설치와 한반도 해역 작전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0호(2022), p. 214.

15)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 1=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서울: 돌베개, 1988), pp. 482-484.

일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으며, 접안시설과 유류 저장고 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항공기지는 당시 건설 중이던 3개소(포항, 평택, 여수)를 제외하고 실제로 해군항공대가 주둔했었다.¹⁷⁾ 마지막으로 진해에는 한반도 전역에서 입체적인 해상작전이 가능토록 수상비행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지와 항공기를 제작·수리할 수 있는 항공창(航空廠)이 있었다.¹⁸⁾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남아있던 일본 해군의 작전기지와 항공기지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해방 이후 38도선 이남의 일본 해군기지 및 항공기지 현황

구 분	기지명	비 고
해군기지	진해	항만시설, 조선대, 중유조 등 보유
함정정박시설	인천, 목포, 목호, 군산, 여수	진해경비부 소속
	진해, 여수	수상비행기지
항공기지	김해, 광주, 제주, 포항, 평택	항공대 훈련소(김해), 육상폭격기 발진기지

* 출처: 김윤미(2022), pp. 203-243; 조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4집(2023), pp. 95-126을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ROK-US Combined Forces Command)를 비롯해 미 제8군과 미 제2사단이 이전했다.

17) 여수 해군항공기지의 수상비행장은 길이 210m, 폭 100m의 2,500m²의 면적으로 건설되고 있었으며, 5대의 수상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격납고와 44동의 공장 및 병영이 있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은 이 비행장을 폐쇄했다. 신주백, “1945년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제70호(2009), pp. 266-268.

18) 수상비행기 기지는 1936년에 설치되었다. 또한 1941년 일본 해군은 중국과의 전쟁에 필요한 항공기의 제조·수리를 조선에서 맡는 계획을 수립하고, 1942년 8월 진해 행암만 풍호동과 덕산동 일대에 제51해군항공창을 설치했다. 패전 직후 일본 해군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진해 항공창에는 청사 5동, 공장 24동, 격납고 1동, 전신소 2동, 병사(病舍) 4동, 창고 16동, 부속 건물 22동, 관사 206동 및 창고 시설로 사용된 대형 지하공장(9,191m²)과 길이 800m, 폭 70m의 활주대(滑走帶)가 있었다. 고경석(2016), pp. 176-177.

1946년 1월 9일 미 합동위원회(Joint Board)가 조선해안경비대의 임무를 38도선 이남 한반도 연안에서의 “해안순찰 및 경찰 기능”으로 규정하자 해군기지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했다.¹⁹⁾ 이에 따라 1946년 4월 15일 조선해안경비대는 서울의 관문이자 한반도 제2의 항구였던 인천항에 첫 번째 작전기지를 설치하고 6월 7일부터 진해와 인천 근해에서 해상경비 임무를 시작했다. 이때 진해에서는 마산만과 부산 일대의 불법조업과 밀수선 단속, 조난선박 구조 업무 등을 시행했으며, 인천기지에서는 제대로 된 함정이 없어 훈련을 겸한 항내 초계(哨戒)만 이루어졌다.²⁰⁾ 1947년 8월 29일부터 1948년 5월 10일까지 인천기지사령관을 역임했던 정궁모(鄭兢謨, 1914~1980)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부임 이후) 일본이 물러가면서 모조리 파괴해 버린 항로를 표시하는 일이며, 곳곳에 세워진 등대에다 불을 켜는 일이며 항로에 장애가 없도록 해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해난구조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천 경비부에는 아직도 군함다운 군함이 없었으므로 훈련을 한 번도 제대로 실시할 수가 없었고, 주어진 과업에도 한계가 있었다.²¹⁾

이어서 조선해안경비대는 과거 일본 해군이 한반도 해역을 방

19) 당시 미 합동위원회는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주일본연합군사령부(SCAP/GHQ) 최고사령관에게 38도선 이남 한반도에서의 “군대 창설을 연기할 것”을 지시함과 동시에, 해안경비대를 “한국 해군의 중핵(a nucleus of Korean Naval Force)이 아닌, 일상적인 해안순찰 및 경찰 기능(customary inshore patrol and police functions)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The Joint Chiefs of Staff to General of the Army Douglas MacArthur, at Tokyo” (1946. 1. 9), *FRUS: diplomatic papers 1945, The British and Commonwealth, the Far East, Vol. VI, pp. 1156-1157.*

20) 해군본부(2016a), p. 99.

21) 鄭兢謨, “나의 海岸警備隊 時節: 建軍全夜의 明暗,” 『세대』, 통권 87호(1970년 10월), p. 187.

어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에 기초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연안을 6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목포(1946년 8월 18일), 목호(1946년 8월 22일), 군산(1947년 1월 6일), 포항(1947년 2월 8일), 부산(1947년 9월 24일)에 순차적으로 해군기지를 설치했다. 그리고 1946년 10월 1일에는 진해 해군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해 마산만 일대의 경비와 장병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특설기지(特設基地)로 지정했다.²²⁾

이외에도 조선해안경비대는 해상경비 임무의 효율화를 위해 제주와 여수에 함정 전진기지 개념인 수영(水營)을 설치하고, 김포와 주문진의 육상 경비를 위한 파견대를 건설했다. 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 9월까지 조선해안경비대는 일본 해군의 시설물들을 활용해 6개의 작전기지(인천, 목포, 목호, 군산, 포항, 부산), 2개의 수영(여수, 제주), 2개의 파견대(김포, 주문진) 체제를 구축하고, 38도선 이남에서의 해안방어 체계를 완성했다. 그리고 이들 해군기지의 시설과 체계는 이후 한국 해군이 그대로 인수해 사용했다.

22)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1948. 7. 1), RG 332, United State Army Force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43 (2 of 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179_01_06C0007_004).

〈표 2〉 조선해안경비대 기지 설치 현황 및 담당해역(1948. 8.30)

부대명	창설일자	예하 수영·파견대	담당해역
인천기지	1946. 4.15	김포파견대(1946. 8.16)	경기도 연안
목포기지	1946. 8.18	제주수영(1947. 6.21)	전라남도 연안과 제주도
목호기지	1946. 8.22	주문진파견대(1947. 3.26)	강원도 연안
진해 특설기지	1946.10. 1	-	진해·마산만 일대
군산기지	1947. 1. 6	-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연안
포항기지	1947. 2. 8	-	경상북도 연안과 울릉도
부산기지	1947. 9.24	여수수영(1947. 7. 1)	경상남도 연안

* 출처: “History of Korean Coast Guard” (1948. 9. 7),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004_25_00C0232).

3. 장병의 양성과 교육

19세기 이후의 국제정치에서 해군은 최첨단의 근대성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당시 해군을 구성하는 함정, 사관(士官)과 수병(水兵), 조선(造船)과 수리시설, 해군 조직 등은 발달한 과학기술과 국가 제도 없이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중에서도 해군 사관은 함정 운용에 필수적인 항해술과 운용술, 내연기관에 대한 지식 등 최고 수준의 기술이 요구된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로 이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학술과 기술을 교육하는 기관이 별도로 필요했다.²³⁾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도 양질의 교육훈련 시설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장교를 양성하고, 해운 전문인력 등을 흡수하고자 했다.

첫째, 해군사관학교(海軍士官學校) 설립을 통한 새로운 장교 양성이다.²⁴⁾ 이 기관은 미국식 군사교리와 사고방식으로 훈련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 초기부터 미 해군사관학교를 모방했다. 특히 손원일은 해방병단 창설 초기부터 해군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과 미국의 교육제도 도입을 강조할 정도로 이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했다. 후일 손원일은 해군사관학교 설립 배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한 바 있다.

사관학교는 1946년 1월에 시작했고, 내가 교장을 겸임하기는 했지만 그때 환경으로 보아서는 사관학교를 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첫째로 교관도 교재도 갖추어져 있지 못했다. 그러나 장차 해군의 기간(基幹)이 될 사관학교를 세운 것은 소시(小時: 젊은 시절)에 선진국 구라파(歐羅巴: 유럽)를 다니면서 느꼈기 때문이다. 거기서 교육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즉 아는 국민은 살고 모르는 국민은 이 세계 생존경쟁에서 낙오자가 되어 심지어는 망국의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²⁵⁾

1946년 1월 17일 개교한 해군사관학교는 미국의 교육과정에

23) 박영준,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메이지 유신을 향한 부국강병의 길』(서울: 그물, 2014), p. 29.

24) 설립 당시에는 해군병학교(海軍兵學校)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후 해군병학교는 1946년 6월 15일 해안경비대사관학교(海岸警備隊士官學校), 8월 10일 해안경비대학(海岸警備大學), 1947년 8월 14일 해사대학(海事大學), 1948년 11월 16일 해군대학(海軍大學)으로 개칭했으며, 1949년 1월 15일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로 교명을 확정했다.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70년사』(진해: 해군사관학교, 2016), pp. 32-34. 이 연구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25) 손원일, “해군의 어제,” 『해군』, 제174호(1967.12).

따라 4년제 교육과정을 목표로 했지만, 장교 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1기생의 교육 기간을 1년(1946. 1. 8 ~ 1947. 2. 7), 2기생의 교육 기간을 1년 10개월(1946. 2. 7 ~ 1948.12.25), 3기생의 교육 기간을 2년 6개월(1947. 9. 2 ~ 1950. 2.25)로 단축 운영했다.²⁶⁾ 그 결과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해군사관학교는 총 3개 기수 163명의 해군 장교를 양성할 수 있었다.

초창기 해군사관학교는 독자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어 일본이 한국에 남기고 간 해군 유산들을 활용했다. 따라서 일본 해군의 내무생활 규정과 훈련 방법 등을 채택했으며, 일본의 해원양성소와 유사한 교과과정으로 사관생도들을 교육했다. 특히 이 시기는 교관 전원이 일본의 해원양성소 출신이었으므로 이 같은 교육방식을 채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도 했다.²⁷⁾ 그러나 장차 조선해안경비대를 지휘할 장교들이 일본의 방식이 아닌 미 해군의 훈련방식과 전술, 군에 대한 사고방식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손원일의 건의를 미군정이 수용함에 따라 1946년 10월부터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이 파견되어 미국식 교육체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²⁸⁾ 특히 1947년 1월에는 미군정의 주선으로 김일병(金一秉) 해군사관학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찰단이 미국에 파견되어 미 해군사관학교의 교육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26)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진해: 해군사관학교, 1996), pp. 42-43.

27) 해군본부, 『명예·헌신·용기의 귀감, 이성호 제독』(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b), pp. 31-34.

28) 이 시기부터 미 극동해군사령부와 협조, 한반도 근해를 초계하는 미 구축함에 사관생도들을 파견·교육하기 시작했다. 國防部(1984), p. 277. "History of Korean Coast Guard" (1948. 9. 7),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004_25_00C0232).

당시 김일병 사관학교장은 미국 시찰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1948년 9월에 입교하는 4기생에 적용했다.

당시 개편된 교육체계는 미 해군사관학교의 제도를 모방하면서도 이를 조선해안경비대의 실정에 맞도록 보완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때 처음으로 미 해군사관학교의 4년제를 본뜬 3년 6학기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교과과정 또한 기존 항해, 기관의 2개 학과에서 물리화학·전기공학, 항해운용, 무기포술, 외국어, 국어·국사 및 정치·경제, 수학, 훈련, 박용기관, 체육 총 9개 학과로 확대 실시되었다. 또한 1949년부터는 생도대(生徒隊)가 정비되어 대대장, 부대대장 및 부관, 교육(작전), 통신, 보급관의 참모조직이 구성되고, 예하에 4개 중대, 8개 소대가 편성됨으로써 미 해군사관학교와 유사한 조직과 교육제도를 갖추게 되었다.²⁹⁾

둘째, 특별임관(特任) 제도와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대(特敎隊) 설치이다. 1946년 1월 17일 조선해안경비대는 진해에 해군사관학교를 개교하고 사관생도 양성을 시작했지만, 이들이 임관해 해군의 중추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조선해안경비대원들을 지휘할 장교도 다수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는 군사경력 및 항해경험을 보유한 일반인 중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 장교로 임관시킨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1946년 2월 1일 특별임관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해군 창군 요원의 한 사람으로 선박기관 교육을 담당했던 한갑수(韓甲洙, 1921~2012)는 “해군을 지원하는 우리 진해(고등해원양성소) 후배 및 동문이 다수 있다는 정보가 있어 (조선해안경비대 참모회의에서) 해군 인사정책의 문호를 개방하느냐,

29) 그러나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시절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던 수영훈련과 같은 일부 교과과정도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계속 운영되었다. 해군사관학교(1996), pp. 42-53.

(사관학교를 통해) 후배를 양성하느냐를 두고 격론 끝에 문호를 개방하여 (조선해안경비대) 발전을 가속화시키기로 결론이 났다”고 회고한 바 있다.³⁰⁾ 이러한 점에서 특별임관 제도는 사관의 시급성을 고려해 장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생략하고, 그간의 경력만을 위주로 급히 선발한 임시방편의 조치였다.³¹⁾

그러나 특별임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증가하는 사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자 1948년 6월 29일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 사관학교 내에 사관후보생 양성을 위한 특별교육대를 설치했다.³²⁾ 특별교육대는 사관으로 임관을 희망하는 병조장(兵曹長: 현재의 상사 계급)과 고학력 일반인들을 선발해 법무, 경리, 군의, 정훈, 기관, 시설, 병기, 통신, 수로, 기상 등의 전문기술을 가진 사관을 양성하는 것뿐 아니라, 상선학교와 해원양성소 출신의 해기사를 조선해안경비대로 흡수하는 역할도 병행했다.³³⁾ 이에 따라 6·25전쟁 발발 직전까지 특별교육대대는 총 9개 기수, 425명의 장교를 배출했다.³⁴⁾

당시 특별임관 제도와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대를 통해 배출한 인력들은 대부분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이었다.³⁵⁾ 한일병합 이후 조선인들의 해운계 진출을 꺼렸던 일본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폭증한 해운 수요를 충당하고, 식민지 경영의

30) 한갑수, “해군건설에 관한 나의 회고,” 金在勝, 『鎮海高等海員養成所校史: 韓國海運과 海軍 創設期の 主役들』(鎮海: 鎮海高等海員養成所 同窓會, 2001), p. 269.

31) 이 제도를 통해 일본해군특별지원병 출신 중 일부가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또한 해안경비대 창설 요원들도 특별임관 제도를 통해 해안경비대의 계급 체계 내로 편입되었다. 해군본부(2016a), pp. 48-49, 76.

32) 海軍士官學校,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鎮海: 海軍士官學校, 1981), pp. 85-86.

33)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檀紀4287[1954]), pp. 58-60.

34) 한용원(1984), p. 88.

35) 진해고등해원양성소의 역사에 관해서는 金在勝(2001); 이상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해원양성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1집(2022), pp. 133-164.

효율화를 위해 1919년 인천에 해원양성소를 설립하고 조선인 해기사(海技士)를 양성했다. 그러나 조선인 해기사 양성이 계획되기로 이루어지지 않자,³⁶⁾ 1927년 교사를 진해로 이전하고 조선인 우수 자원 모집을 확대했다. 해방 이전 진해고등해원양성소는 141명의 조선인 고급해기사를 배출했는데, 그중 약 33%인 47명이 특별임관 제도(총 10명)와 특별교육대대(총 37명)를 통해 장교로 임관했다.

이들은 3명의 해군총참모장을 비롯하여 9명의 제독, 9명의 대령, 9명의 중령, 11명의 소령 등을 배출했으며, 함정 인수와 사관생도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³⁷⁾ 이에 대해 한갑수는 “일본은 메이지 시대 초기 해군교육을 영국에서 파견한 교관으로부터 받았고, 상선사관으로는 영국인을 고용하였다. 만약 우리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자가 없었더라면 만부득 미국인 교관과 상선사관도 외국인을 고용해야 했을 것임을 생각하면, 진해고등해원양성소 출신자가 국가에 헌신한 공적에 대해 찬사를 받을 가치는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³⁸⁾

셋째, 신병교육대와 항해교육대 설치이다. 1946년 2월 15일 해안경비대는 3개월 과정의 신병교육대를 설치하고 수병에 대한 양성 교육을 시행했다.³⁹⁾ 초기에는 교육대의 편제가 일본 육군식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후 개정이 되어 중대는 분대로, 소대는 교반으로 수정하는 등 차츰 일본 해군식 편제로 개정해 나갔다.⁴⁰⁾ 또한 교육은 일본 해군 체조와 구보, 제식교련, 소단위 부대 전투훈련, 결색(結索: 훑줄 운용), 갑판 소제(掃除: 정비),

36) 인천해원양성소 설립 이후 진해로 이전하기까지 총 64명이 졸업했는데, 그중 조선인은 단 9명에 불과했다. 金在勝(2001), pp. 59-63.

37) 金在勝(2001), pp. 209-226.

38) 한갑수, “해군건설에 관한 나의 회고,” 金在勝(2001), p. 270.

39) 『대동신문』(1946년 2월 17일).

40) 해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해군교육사70년사(1946~2015)』(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16), p. 13.

선구(船具)의 정비 및 비치, 단정양강(短艇揚降) 등을 교육하다 점차 미 해군의 편제와 교육과정을 채택했다.⁴¹⁾ 6·25전쟁 이전까지 신병교육대는 16개 기수 총 6,137명의 수병을 배출했다.⁴²⁾

이어서 1947년 1월 20일에는 하사관 양성기관인 항해교육대가 설치되었다. 창설 초기 항해교육대는 갑판·기관·통신·위생·기술분대로 구성된 특수분대를 편성해 운용하다 9월 1일부터는 이를 항해학교, 기관학교, 공작학교, 통신학교, 위생학교, 주계(主計: 경리)학교 등으로 세분화·전문화했다. 이 시기 하사관에 대한 교육도 신병교육대와 마찬가지로 일본 해군의 방식을 채택했으나, 이후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의 지원을 받아 점차 미국식으로 대체했다. 6·25전쟁 이전까지 항해교육대가 배출한 인원은 총 2,145명이었다.⁴³⁾

초창기 신병교육대와 항해교육대는 일본 해군의 특별지원병과 징집병으로 소집되었던 인적 자원을 상당수 흡수했다.⁴⁴⁾ 1943년 이전 일본 해군은 “소중한 군함에는 절대 확실한 자가 아니면 태울 수 없다. 만일 조선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군함과 함께 전원이 수장된다”는 논리로 조선인의 해군 입대를 허용하지 않았

41) 이 시기에는 신병교육대 입대 시 입고 온 피복을 그대로 입거나 일본해군이 놓고 간 피복을 입는 등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수병의 복장은 1949년 1월 미 극동함대사령관의 진해 방문 관병식을 계기로 미국식으로 통일되었다. 해군교육사령부(2016), p. 25.

42)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50년사』(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pp. 18-19.

4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2002), p. 361.

44) 해군일화집에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김환수(당시 20세)는 1946년 3월 5일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에 입대했다.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으나 함북 청진공립수신학교(5년제) 어로과를 졸업하고, 태평양전쟁의 전황이 일본에 극히 불리했던 1944년 12월에 일본해군특별지원병으로 입대해 진해 해병단 제4기생으로 입대, 1945년 4월에 신병과정을 수료하고 [중략] 신병 교육 조교로 근무 중 8·15광복을 맞아 귀향하게 되었다. (이후 김환수는 부산역에서) 해병병단 단원 모집이라는 포스터를 보게 되고, 곧바로 진해로 달려가 해방병단 인사과에서 입대를 지원하였다.”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제4집』(논산: 해군본부, 1993), p. 8.

다.⁴⁵⁾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인만으로 병력 확보가 어려워지자, 1943년 5월부터 해군특별지원병령을 공포하고 조선인에 대한 모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종전 직전까지 1만 2,166명의 조선인 지원병이 일본 해군에 입대했으며, 이들은 수병·정비병·기관병·공작병·위생병·주계병 등으로 배치되어 제한적이지만 해군과 관련한 전문기술을 습득했다.⁴⁶⁾ 또한 1944년 5월부터는 해군징병령이 공포되어 6,352명의 조선인이 해군 육전대(陸戰隊)에 배치되기도 했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해방 이전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은 총 1만 8,599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인력의 상당수는 1949년 4월 15일 창설된 해병대에 흡수되어 한국 해병대의 원형(原型)을 형성했다.⁴⁷⁾

<표 3> 해방 이전 일본 해군에 동원된 조선인 현황

구분	해군특별지원병	해군징병	해군예비보습**	해군예비연습***	합계
인원	1만 2,166명	6,352명	53명	28명	1만 8,599명
비율	65.41%	34.15%	0.29%	0.15%	100%

* 출처: 표영수, “해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9호 (2009), p. 301.

** , ***: 해군예비보습생과 예비연습생은 사관후보생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으로 실제 장교로 임관하지 못했다.

45) 宮田節子(미야다 세츠코), 이형량(역), 『朝鮮民衆과「皇民化」政策』(서울: 一潮閣, 1997), p. 51.

46) 조건, “일본 해군의 조선인 병력동원 제도 사항과 특징,” 『북아시아론』, 18호(2023), pp. 329-331.

47) 해병대 창설 요원이었던 김성은(金聖恩, 1924~2007)의 회고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손원일 해군총참모장은 “지금 우리 해군에는 일본 육군, 만주군, 일본 해군 육전대 출신 등 많은 인재가 있다. 이들을 해병대로 활용하면 공비토벌, 상륙전, 군함, 기지사령부 경비 등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이들의 해병대 입대를 독려했다.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前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p. 125.

4. 함정 확보와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활동

1945년 9월 중순 미 제24군단은 행정명령 제19호를 발령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남아있는 일본 해군 함정을 보존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향후 창설될 가능성이 큰 한국 해군(혹은 조선해안경비대)에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당시 진해경비부의 무장해제를 담당했던 미 해군이 제24군단의 지휘 계통 밖에 있었던 관계로 이 명령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 상당수의 함정이 관리 소홀로 분실 혹은 폐기 처분되었다.⁴⁸⁾

따라서 1946년 1월 초 조선해안경비대가 운용할 수 있었던 함정은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100톤급 이하의 디젤선 2척, 증기선 3척, 상륙용 주정(舟艇) 2척과 1척의 잡역선(雜役船)에 불과했다.⁴⁹⁾ 게다가 이 무렵에는 근대식 해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원도 소수에 불과해 이들 함정을 제대로 운용하기도 어려웠다.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자 조선해안경비대는 미군정에 함정을 제공하고, 함정 운용을 교육할 고문단 파견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⁵⁰⁾

이 무렵 38도선 이남 한반도 연안에서의 쌀 밀수 등을 단속할 여력이 부족했던 미군정도 조선해안경비대에 함정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¹⁾ 1946년 3월 4일 맥아더 최고사령관은 패터

48)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1988), pp. 147-148.

49)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檀紀4287[1954]), p. 29.

50) 『자유신문』(1946년 1월 1일).

51) 1946년 5월 9일 주한미육군 정보참모부(G-2)는 “한국인들의 식량 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해안경비대를 신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Illegal Shipment and Smuggling by Korean to Japan” (1946. 5. 9), RG

슨 미 전쟁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South Korea)과 일본 간 쌀의 밀수를 중단하는 것이 (미군정의) 중요한 과제”이며,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South Korean Coast Guard)에 적절한 함정을 배치하고, 이들을 지휘·감독할 요원을 보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미국정부가 총 121척의 함정(경비함 34척, 보조순찰정 25척, 항만보조정 51척, 기타 11척)을 지원하고, 이를 지휘·감독할 33명의 미 해군고문단(장교 15명과 부사관 18명)을 파견해 한다고 주장했다.⁵²⁾ 특히 맥아더 최고사령관이 요청한 함정에는 전투함(PC급 구잠함 및 SC급 구잠정)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조선해안경비대는 이 계획에 발맞추어 항공대를 조직하는 방안도 추진했다.⁵³⁾

그러나 당시 조선해안경비대를 지원할 책임이 있던 미 해군은 가용 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반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 337만 7,840명의 병력과 1만여 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던 미 해군의 전력은 1946년 중반 95만 1,930명의 병력과 3,000여 척의 함정에 불과할 정도로 대폭 축소되어 있었다.⁵⁴⁾ 특히 해군은 전후 7,000여 척에 달했

332, USAFIK,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Box No. 34, Opinion Surveys 1945-46 & Political Trends thru Repatriation and Removal of Peoples in Pusan Area (5 of 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건 AUS179_01_05C0142_076).

52) 맥아더 최고사령관은 그중 “25%의 함정들이 최대한 빨리(soonest) 해안경비대에 제공”되어야 하며, 나머지 함정들도 “4개월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Korean Coast Guard” (1946. 3. 4),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for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건 AUS175_04_01C0002).

53) 『동아일보』(1946년 4월 8일).

54) George W. Baer, *One Hundred Years of Sea Power: The U.S. Navy, 1890-199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 289. 당시 미 해군의 동원해제 과정에 관해서는 George T. Hodermarsky, *Postwar Naval Force Reductions 1945-1950: Impact on the Next War* (Master's thesis, Naval War College, 1990), pp. 16-23.

던 잉여 함정이 대부분 폐기 처분되거나, 미국의 냉전 수행전략에 따라 유럽 등의 우방국에 제공하기로 약속된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 맥아더 최고사령관의 요청을 거부했다.⁵⁵⁾ 따라서 조선해안경비대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는 1946년 중반까지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공전을 거듭했다.

조선해안경비대를 둘러싼 미국정부 내의 논의는 1946년 중반이 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다. 1946년 6월 미군정이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의 지원을 받는 수상경비대가 창설되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⁵⁶⁾ 미 합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더는 지연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⁷⁾ 1946년 7월 18일 미 합동위원회는 주일연합군최고사령부가 조선해안경비대 육성의 책임을 지는 대신 미 해군은 “주일연합군최고사령부가 요청한 함정들을 제공하고,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파견할 수 있도록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특

55) “Joint Logistics Plans Committee, Korean Coast Guard” (1946. 5.11),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for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6.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3).

56) 1946년 6월 북조선인민위원회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서해 수상경비대를 창설했다. 이어서 7월과 8월 사이에는 동해수상경비대도 창설되었다.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駐韓美軍 北韓情報要約』, 2, 1947. 4. 1~1948. 1. 9, (春川: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89), p. 218. 김선호는 수상경비대가 조선해안경비대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창설된 것으로 평가했다. 김선호, “북한 해양경비부대 창설과정 연구: 해군의 기원과 초기 간부를 중심으로,” 『軍史』, 제108호 (2018), p. 206.

57) 당시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의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Robert T. Oliver, 1909~2000)는 그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정책 전환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제 미국인들은 소련이 한반도의 부동항들(warm water ports)을 통제하려는 시도가 세계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부동항들을 얻기 위해 지난 50여 년 동안 노력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Oliver to Syngman Rhee” (1946. 6),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資料集』 28: 李承晩 關係書翰 資料集 1(1944~1948),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6), pp. 107-108.

히 미 합동위원회는 소련과의 분쟁 예방을 위해 해군이 아닌 해안경비대 고문단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⁵⁸⁾

미 합동위원회로부터 이 같은 결정을 통보받은 설리번(John L. Sullivan, 1899~1982) 미 해군장관 대행은 7월 22일 스나이더(John W. Snyder, 1895~1985)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해안경비대는 (장차) 한국 해군의 중핵으로 육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미국정부가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해군을 구축한다는 소련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⁵⁹⁾ 그리고 조선해안경비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머레이(George D. Murray, 1889~1956) 제독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파견했다.

1946년 7월 29일 조선해안경비대 시찰을 종료한 머레이 제독은 쿡(Charles M. Cooke Jr., 1886~1970) 미 7함대 사령관에게 서한을 보내 조선해안경비대 대원들이 “해군과 관련한 훈련은 사실상 받지 못하고(naval training practically zero)”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함정들도 “매우 제한된 목적으로 해상경비에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미군정과 조선해안경비대가 추진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자신들의 능력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은 것(not realistic)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45척의 함정(미 해군 17척, 미 육군 28척

58)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1946, 7.18),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for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7.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175_04_01C0004).

59) “From The Secretary of the Navy to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1946, 7.22),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자료철 AUS175_04_01C0005).

등)과 조선해안경비대를 지휘·감독할 15명(장교 8명, 부사관 7명)의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파견을 건의했다. 당시 머레이 제독은 조선해안경비대를 시급히 증강해야 한다는 미군정의 의견에는 동의했지만, 그 지원 규모가 소련을 자극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⁶⁰⁾

머레이 제독의 방문 결과를 보고받은 미 해군부와 재무부는 조선해안경비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1946년 8월 7일 스나이더 미 재무장관은 설리번 해군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파견해 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수락하고, 이들을 선발하는 절차를 곧 시작하겠다고 방침을 통보했다.⁶¹⁾ 이어서 8월 9일 니미츠(Chester W. Nimitz, 1885~1966) 미 해군참모총장도 조선해안경비대에 17척의 함정(대형상륙정, 보조소해정)을 제공하고, 15명의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장교 8명, 부사관 7명)을 파견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합동위원회에 보고했다.⁶²⁾ 또한 주일연합군최고사령부도 과거 일본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함정들을 선별하여 조선해안경비대를 지원할 준비를 시작했다.

60) 이 보고서는 타워스(John H. Towers, 1885~1955)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을 거쳐 합동위원회와 재무부로 발송되었다. “From Commander, Seventh Fleet to Commander in Chief, U.S. Pacific Fleet” (1946. 7.29),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5).

61) “From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he Secretary of the Navy” (1946. 8. 7),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5).

62) “Memorandum by the Chief of Naval Operations” (1946. 8. 9), RG 218, Korea (5-36-47) to 383.21 Korea (3-19-45), Geographic File, 1946-47, Box 37,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8.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1C0005).

1946년 9월 2일 미 재무부는 맥케이브(George E. McCabe, 1899~?) 대령을 단장으로 하는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조선해안경비대에 파견했다. 이어서 9월 14일에는 미 해군이 지원하기로 한 2척의 대형상륙정도 부산에 도착해 미국 주도의 조선해안경비대 육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7년 12월까지 미국정부는 조선해안경비대에 6척의 대형상륙정과 11척의 보조소해정, 그리고 일본 해군이 사용했던 11척의 연안소해정 등 총 36척의 함정을 지원했다.⁶³⁾

(표 4) 미군정기 미국의 함정 원조 현황

구 분	척수	톤수	비고
대형상륙함	6척	387톤	미 해군 원조
보조소해정	11척	320톤	미 해군 원조
연안소해정	18척	180톤	일본 해군의 연안구잠정을 소해정으로 전용(轉用), 미 육군 원조
소형예인선	5척	-	미 해군 원조
유조정	1척	1,226톤	미 해군 원조

* 출처: “History of Korean Coast Guard” (1948. 9. 7),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 사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004_25_00C0232).

미국으로부터 함정 인수가 시작되자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은 장교와 하사관을 대상으로 함정 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⁶⁴⁾ 통신망 및 항해 장비 설치를 지원

63) 그 외에 미군정이 지원한 71척의 소형주정이 있었다. 해군본부(2016a), p. 105.

64) 조선해안경비대 장교들에 대한 교육훈련은 4명의 미 해안경비대 고문관에 의해 함정 운용에 관한 이론 교육과 실습이 병행되었으며, 하사관들은 갑판과와 기관과로 구분되어 장비 작동과 정비 분야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했다.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6), pp. 171-172.

했다.⁶⁵⁾ 그 결과 1947년 8월 30일부터 해안경비대는 38도선 이남에서 독자적으로 해상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작전 역량이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이들 전력만으로는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전 연안을 경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⁶⁶⁾

이에 따라 조선해안경비대는 미군정에 함정과 함포 등의 무장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반복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해안경비대에 함정과 고문단을 추가로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며, 서태평양에 전개한 미 해·공군력의 우세만으로도 (38도선 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유를 근거로 조선해안경비대의 요구를 거부했다.⁶⁷⁾

이 무렵 미국이 조선해안경비대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자국의 대한안보정책이 38도선 이남의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에서 한국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지원한 후 ‘명예롭게 철수(graceful exit)’하는 방향으로 변한 것과 관련이 깊었다. 이미 1947년 중반부터 미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대소련 봉쇄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아니며,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이곳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⁶⁸⁾ 이 같은 판단

65) “History of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 to 1 July 1948” (1948. 7. 1), RG 332, United State Army Force in Korea, XXIV Corps, G-2, Historical Section, Records Regarding USAMGIK, U.S.-U.S.S.R. Relations in Korea, and Korean Political Affairs, 1945-48, Box 43 (2 of 5).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9_01_06C0007_004).

66) 해군본부(2016a), pp. 99-100.

67) “Memorandum for the Under Secretary of the Army: South Korean Armed Forces” (1947.10.29), RG 165, Records of the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s, 1860-1952, American-British Conversations Correspondence Relating to Planning and Combat Operations, 1940-1948 [Entry NM84 421], ABC Files, 014 Japan, 014 Japan (13 Apr 44) Sec. 17-E.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자료참조 코드(사료철 AUS023_05_01C0024).

68) 1947년 9월 26일 포레스털(James V. Forrestal, 1892~1949) 미 국방장관은 군사안보의 관점에서 “한국에 병력과 기지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 전략적 이익이

에 따라 1948년 4월 2일 미국은 주한미육군 철수에 대비해 조선경비대(Korean Constabulary)를 정규군(armed forces)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면서도 전환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선해안경비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NSC 8)을 확정했다.⁶⁹⁾

그 결과 1948년 초반부터 조선해안경비대가 보유한 함정들은 정상적인 경비 임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리고 이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 출신의 김달삼(金達三, 1923~1950)이 주도해 일으킨 무장봉기에 조선해안경비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당시 조선해안경비대는 18척의 함정을 투입해 제주도 전 해안을 봉쇄했지만, 함정의 화력 부족과 기동력 저하 등으로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탈출하는 공산주의자들을 완벽히 차단하지 못했다.⁷⁰⁾ 이는 1948년 중반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의 다음과 같은 평가에 잘 드러난다.

없다"고 평가했다. *"Memorandum by the Secretary of Defense (Forrestal) to the Secretary of State" (1947, 9,26), FRUS 1947, Far East, Vol. VI, pp. 817-818.*

- 69) 이 문서에는 “북조선이나 다른 무력 집단의 공공연한 도발 행위를 제외하고, 무엇에 대해서든 실현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38도선 이남 한반도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 ‘조선경비대’를 확대, 훈련, 무장시킨다는 현존 계획을 신속하게 완성한다”는 방침이 수록되었다. *"Note by the Executive Secretary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ouers) to President Truman" (1948, 4, 2), FRUS 1948,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Vol. VI, pp. 1163-1169.*
- 70) 손경호에 따르면 당시 김달삼이 지휘하는 남로당은 평범한 폭도에 불과했지만 이후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지원을 받아 중앙집권화(centralized) 및 무장화(militarized)된 게릴라로 변했다. 특히 이 사건의 주모자였던 김달삼은 조선경비대의 토벌로 제주도에서의 게릴라 활동이 제약을 받아 조선해안경비대의 해안봉쇄를 돌파하고 월북해 북조선최고인민회의 제1기 대의원에 선출되기도 했다. *Kyengho Son, The 4.3 Incident: Background, Development, and Pacification, 1945-1949 (Ph.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8), p. 251.*

현재 조선해안경비대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보급입니다. 미 해군이 원조한 다수의 함정은 별도의 수리부속이 없는 상태로 조선해안경비대에 제공되었으며, 일본 해군의 소해정들 역시 여분의 부품과 장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략] 또한 조선해안경비대는 일본제 소총과 권총으로만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조선해안경비대는 함포를 획득하고자 노력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조선해안경비대에 40mm 함포와 20mm 기관포를 시급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장 없이는 밀수 행위를 차단할 수 없으며, 또한 (해상에서 제기되는 공산주의자들의) 불법 행위로부터 함정을 방어하기 위한 경고 사격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⁷¹⁾

1948년 7월 9일, 딘(William F. Dean, 1899~1981) 미군정 장관은 “상태가 양호하며, 충분한 수리 부속을 탑재한 1척 이상의 호위구축함을 조선해안경비대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미 합참에 피력하였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⁷²⁾ 결과적으로 미국의 소극적인 조선해안경비대 육성방침은 6·25전쟁 발발 이후까지도 계속됨으로써 대한민국 출범 직후부터 해군 증강을 추진한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과 충돌했다.

71) “Organization and Purpose” (undated), RG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Lt. Gen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48, Entry 11070, Box 105, AG File, 400.31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004_25_00C0232). 1949년 5월 23일 손원일 해군 총참모장도 “지금 우리 해군은 그 행동 거리에 있어 치명적 제약을 받고 있어 우리가 요구하는 시간적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애로에 부딪혀 있으며, 함정의 방탄 장치가 거의 없으므로 피탄했을 때에는 관통이라는 이중적 손해를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신문』(1949년 5월 26일).

72) “Request for Destroyer Escort Class Vessel for Korea” (1948. 7. 9), RG 218, Korea (3-19-45), Sec. 16-19, Geographic File, 1948-50, Box 37, Military Government of Korea, CCS 383.21 Korea (3-19-45), Sec. 16 (1 of 2).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자료관 사료참조 코드(사료철 AUS175_04_02C0002).

5. 결론

미군정기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 과정을 재조명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방 이후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발전은 38도선 이남의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해운) 관련 유산과 미국의 군사원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창설 초기 손원일은 해군 창군이 미국의 군사원조 없이는 불가능하며, 해방병단의 빠른 조직화를 위해서는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유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방병단 본부를 해방 이전 일본 해군이 건설한 최대의 해군기지인 진해에 설치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이를 인계받아 해방병단의 조직을 빠르게 확충하고자 했다.

특히 이 연구는 조선해안경비대로의 개칭 이후 발전 과정을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의 해군 관련 시설 인수, 장병의 양성과 교육, 미국의 군사원조를 통한 함정 확보와 미 해안경비대 고문단 활동 등의 측면에서 파악했다. 우선 조선해안경비대는 해방 이전 일제가 한반도에 건설한 해군기지와 함정 정박시설 등을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 목포 등지에 작전기지를 설치했다. 또한 해군사관학교를 설립해 미국식 군사교리와 사고방식을 가진 해군 장교를 양성했으며, 특별임관 제도와 사관후보생 특별교육대대 등의 설치를 통해 일제시기 근대적 해운을 경험한 인적 자원들을 대거 흡수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으로부터 함정과 해안경비대 고문단을 지원받아 전력을 일시에 확충하기도 했다. 조선해안경비대가 비교적 단기간에 38도선 이남의 한반도 연안

에서 독자적으로 경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같은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둘째, 그중 미국의 군사원조는 조선해안경비대의 창설과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 요인이었지만, 반대로 그 한계도 명확했다. 1947년 중반 미국은 대한민국 수립과 주한미육군 철수에 대비해 조선경비대를 정규군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지원하면서도 전환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조선해안경비대는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그 결과 1948년 초반부터 조선해안경비대가 보유한 함정들은 정상적인 경비 임무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남로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에 조선해안경비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미국의 소극적인 조선해안경비대 육성방침은 6·25전쟁 발발 이후까지도 계속됨으로써 대한민국 수립 직후부터 해군 증강을 추진한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과 충돌했다.

〈참고문헌〉

1. 사료 및 공간사

- 國防部, 『國防史 1, 1945. 8 ~ 1950. 6』, 서울: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1984.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 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資料集 28: 李承晚 關係書翰 資料集 1(1944~1948)』, 과천: 國史編纂委員會, 1996.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駐韓美軍 北韓情報要約, 2, 1947. 4. 1 ~ 1948. 1. 9』, 春川: 翰林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 1989.
- 해군교육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50년사』,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06.
- 해군교육사령부, 『대한민국 해군교육사70년사(1946~2015)』,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2016.
- 해군본부, 『해군일화집 제4집』, 논산: 해군본부, 1993.
- 해군본부, 『대한민국해군 창군사』,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a.
- 해군본부, 『명예·헌신·용기의 귀감, 이성호 제독』, 계룡: 해군역사기록관리단, 2016b.
- 海軍本部 戰史編纂官室, 『大韓民國 海軍史 行政篇, 第1篇』, 서울: 海軍本部, 檀紀4287[1954].
- 海軍士官學校, 『大韓民國 海軍士官學校史, 1946-1981』, 鎭海: 海軍士官學校, 1981.
- 해군사관학교, 『대한민국 해군사관학교 50년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1996.
- 해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70년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2016.
- 『동아일보』, 『대동신문』, 『연합신문』, 『자유신문』
- 미국의 대외관계(FRUS) 시리즈
-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문서
- Sawyer, Robert K. and Walter G. Hermes(eds.),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Dept. of the Army, 1962.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駐韓美軍史, 1 =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서울: 돌베개, 1988.

2. 저서

김연옥(편역), 『일본 해군의 한반도 기지 건설, 한반도 주둔 일본군 사
료 총서 3』, 서울: 역사공간, 2011.

金在勝, 『鎮海高等海員養成所校史: 韓國海運과 海軍 創設期の 主役들』,
鎮海: 鎮海高等海員養成所 同窓會, 2001.

고경석, 『鎮海軍港史』, 진해: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6.

박영준, 『해군의 탄생과 근대 일본: 메이지 유신을 향한 부국강병의 길』,
서울: 그물, 2014.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 파주: 나남, 2014.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한용원, 『創軍』, 서울: 博英社, 1984.

Baer, George W., *One Hundred Years of Sea Power: The U.S.
Navy, 1890-1990*,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宮田節子[미야다 세츠코], 이형량(역), 『朝鮮民衆과「皇民化」政策』, 서울:
一潮閣, 1997.

3. 논문

김명섭 · 이호준, “6·25전쟁 이전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
정책, 1948-1950,” 『국제정치논총』, 제62집 4호(2022), DOI:
10.14731/kjir.2022.12.62.4.283.

김선호, “북한 해양경비부대 창설과정 연구: 해군의 기원과 초기 간부
를 중심으로,” 『軍史』, 제108호(2018).

- 김윤미,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 해군의 진해경비부 설치와 한반도 해역 작전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110호(2022).
- 김주식,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2008).
- 김주식, “6·25전쟁기 한국 해군의 함정 획득과 운용,” 『해양담론』, 제1호(2023).
- 신영진, “미 군정기의 군비,” 『軍史』, 제16호(1988).
- 신주백, “1945년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軍史』, 제70호(2009).
- 이상은, “조선총독부 체신국 해원양성소의 설립과 운영,”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1집(2022).
- 이호준·김명섭,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전후 이승만정부의 해군정책,” 『국제정치논총』, 제63집 4호(2023),
DOI: 10.14731/kjir.2023.06.63.2.127.
- 이호준, “이승만정부의 해양위협인식과 해군정책,”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학위논문(2024).
- 조건,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일본군의 한반도 내 항공기지 건설과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4집(2023).
- 조건, “일본 해군의 조선인 병력동원 제도 시행과 특징,” 『북악사론』, 18호(2023).
- 표영수, “해군특별지원병제도와 조선인 강제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59호(2009).
- Hodermarsky, George T., *Postwar Naval Force Reductions 1945-1950: Impact on the Next War*, Master's thesis, Naval War College, 1990.
- Son, Kyengho, *The 4.3 Incident: Background, Development, and Pacification, 1945-1949*. Ph.D. diss., The Ohio State University, 2008.

4. 회고록

김성은,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前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서울: 아
이템플 코리아, 2008.

손원일, “해군의 어제,” 『해군』, 제174호(1967.12).

오진근·임성채, 『해군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상]』, 서울: 한국해양
전략연구소, 2006.

한갑수, “해군건설에 관한 나의 회고,” 金在勝, 『鎭海高等海員養成所校
史: 韓國海運과 海軍 創設期の 主役들』, 鎭海: 鎭海高等海員養
成所 同窓會, 2001.

鄭兢謨, “나의 海岸警備隊 時節: 建軍全夜の 明暗,” 『世代』, 통권 87호
(1970년 10월).

5. 인터넷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ids.mod.go.jp/>

<Abstract>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during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Lee, Hojun
(ROK Navy)

This study analyze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during the United States (U.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combination of Japan's naval legacy left south of the 38th parallel after liberation and U.S. military assistance.

After liberation, an extensive naval legacy was left by Japan in the Korean Peninsula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e Korean Coast Guard rapidly expanded its organization by leveraging these resources. At the same time, it sought to alleviate the scarcity of resources by seeking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 these endeavors, within a brief time frame the Korean Coast Guard expanded its capabilities to autonomously execute coastal security operations in the southern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below the 38th parallel.

The military assistance provided by the U.S. played a crucial role in facilitating the establish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Coast Guard. However, it also revealed certain constraints and limitations. Mid-year in 1947, the U.S. prepared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rmed Force and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Army Force in Korea (USAFIK). However the U.S. didn't attempt to transform the Korean Coast Guard into an Armed

Force, due to the extensive time and costs associated with this conversion, and thus determined that maintain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Korean Coast Guard was more feasible. This passive approach by the U.S. in supporting the Korean Coast Guard persisted even after the 6/25 Communist War in Korea, and contradicted the naval augment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Syngman Rhee administration shortl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Keywords: Korean Coast Guard, ROK Navy, Won-yil Sohn,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Military Assistant